

식민 권력의 통제, 우회 전략으로서의 개작*

—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을 중심으로

康泳美***

I. 서론	IV. 식민지 조선의 불온성
II. 판본별 구성 방식	V. 결론
III. 판본별 수록곡의 특징	

•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小竹 姜信明(1909~1985)이 편찬한 『兒童歌謠曲選 三百曲』의 세 종의 판본을 비교하여 일제의 검열을 우회하기 위해 일부 노래를 삭제하고 다시 수록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폈다. 『아동가요곡집 삼백곡』은 일제의 검열 지침에 의해 일부 노래가 삭제된 것이 아니다. 불온 창가라는 일제의 외적 규정 속에서 기독교계 관련자들이 자체 검열을 통해 일부 노래를 삭제한 것이다. 삭제곡은 대부분 조선을 환기하는 단어가 있는 노래였다. 식민지인에게 조국을 환기하는 단어가 일제의 검열 당국에게는 불온한 것으로, 반일의 상징으로 읽히리라 판단한 것이다. 기독교계에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금주 금연 등의 절제가 류의 노래도 식민지 조선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5339).

** 『아동가요곡선 삼백곡』 초판본은 (재)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재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증보수정본은 민경찬 선생님을 통해 입수했다. 재판본에는 “조선총독부 경무국 기증본” 직인이 찍혀 있고, 증보수정본은 147면까지만 있다. 새문안교회 역사관에서 입수한 재판본과 증보수정본도 위와 같다. 강신명 목사가 소유하고 있던 증보수정본을 소장한 홍정수 선생님께 증보수정본에 대한 결정적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미에 주목하여 삭제했다. 이처럼 일제가 규정한 ‘불온 창가’의 내포를 상상하며 미국인 선교사와 교회 관련자가 일부 노래를 삭제하는 과정, 식민지 평양에서 제국의 동경으로 지역을 옮겨 삭제곡의 일부를 편찬자 강신명이 직접 복구하는 과정은 1936~1940년까지의 시차, 미국인과 조선인이라는 국적의 차이, 식민과 제국이라는 공간의 차이, 아동가요 운동을 전개하는 지향의 차이가 ‘불온’의 해석에 영향을 끼쳤음을 드러낸다. 그 결과 일제가 규정하고 조선인이 구성한 아동가요의 불온성은 일시적이고 자의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주제어 : 강신명, 미국인 선교사, 『아동가요곡선 삼백곡』, 동요, 검열, 불온

I. 서론

『兒童歌謠曲選 三百曲』은 小竹 姜信明(1909~1985)이 주일학교 교안용으로 편찬한 동요선집이다. 식민지시기 동요를 가장 많이 수록한 동요선집임에도¹⁾ 기독교계 자료라는 종교적 선입견, 평양의 농민생활사에서 발행한 지역적 제약성, 등기 필사본으로 만든 제작 방식의 취약성, 원본 텍스트를 입수하기 어려운 점 등이 연구의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강신명이 목회 활동에 주력하고 동요계에서 활동하지 않은 것도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에 대한 관심이 적은 데 영향을 끼쳤다.

최근 주일학교 노래 연구의 맥락, 동요운동의 맥락, 유년교육의 목적에서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을 살핀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다. 김광은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의 구성 및 주일학교 편 노래를 분석하여 연구의 발판을 마련했고²⁾ 최윤실은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의 서지 사항과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는 종합적 접근을 했으며,³⁾ 박인경은 유년 교육에 초점을 두고 주일학교 동요집인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에 주목했다.⁴⁾ 이 세 편의 학위논문을 통해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의 서지사항, 수록곡, 작사가 및 작곡가의 면면, 음악적 특징, 판본별 차이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일학교 편에 수록된 노래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거나 일부 노래만을 살폈기에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의 전모를 살필 수 없고 초판본과 재판본, 증보수정본이 발간된 맥락을 헤아릴 수 없는 아쉬움을 남긴다.

- 1) 조선동요연구협회에서 편찬한 『조선동요선집』에는 92명의 동요 가사 180편을 수록하고, 가사와 악곡을 함께 수록한 흥난파의 『조선동요백곡집』에는 55명의 동요 100곡을 수록한 데 비해, 강신명이 편찬한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에는 90여 명의 337곡을 수록했다.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은 등기필사본이기에 작사가 및 작곡가 이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숫자에서 제외했다.
- 2) 김광, 「강신명의 아동가요곡선 300곡에 관한 연구: 주일학교 노래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광은 『아동가요곡선 300곡』의 주일학교 편에 수록된 노래 가사를 분석하여 주일학교 노래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아동가요곡선 300곡』의 구성 및 편집 방식의 특성을 학계에 최초로 소개한 의의가 있으나 주일학교 편만을 연구했기에 그 외의 아동가요를 다루지 않은 아쉬움을 남긴다.
- 3) 최윤실, 「근대 아동잡지와 주일학교 노래집을 통한 한국 동요 재조명」,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9. 최윤실은 식민지시기의 아동잡지와 주일학교 노래집을 토대로 동요운동이 전개된 양상을 살피는 과정에서 『아동가요곡선 300곡』에 수록된 주일학교 노래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 4) 박인경, 「1930년대 유년문학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인하대 박사학위 논문, 2021.

이 연구에서는 강신명이 편찬한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의 세 종의 판본을 비교하여 일제의 검열을 우회하기 위해 일부 노래를 삭제하고 다시 수록하는 재귀적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각기 다르게 밝힌 수록곡 수를 정확하게 밝히고, 2년 단위의 시차를 두고 세 종의 판본을 발간하게 된 맥락을 당시의 검열 체제와 관련지어 살필 것이다.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에서 발간한 『조선출판경찰월보』를 통해서도 아동문학 분야에 적용된 검열의 큰 틀은 확인할 수 있으나⁵⁾ 개별 동요 작품에 적용된 검열의 실체는 살피기 어렵다. 따라서 1936년 발간한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의 세 종의 판본을 대상으로 하여, 초판본의 24%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1938년에 재판본을 발간하고 초판본 삭제곡의 81%를 되살리는 방식으로 1940년 증보수정본을 발간하는 과정에 나타난 검열의 작동방식 및 검열 회피 과정에 나타난 특징적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강신명이 발간한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의 세 종의 판본은 “검열을 통한 식민지 권력의 통제와 이에 맞서거나 우회하려는”⁶⁾ 노력의 산물이었다는 전제 아래, 각 판본의 삭제곡을 통해 강신명이 원래 수록한 노래, 일제의 검열을 의식하며 기독교 관련자가 자체 삭제한 노래, 시공의 차이 속에서 편찬자 강신명이 직접 되살린 노래의 특징을 추적하고자 한다. “검열에 의해 망실되거나 실종된 작품들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한국 문학사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해버리면 식민지 상황에서 창작된 수많은 문학 작품들의 본래적인 의미는 밝힐 수조차 없”⁷⁾게 되므로 원본을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총독부의 탄압과 통제의 대상이 된 작품들은 제국의 시각에서 보면 불온한 것이었겠지만, 우리 시각에서는 문학을 통한 적극적인 저항과 항거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⁸⁾이다. 『아동가요곡선 삼백곡』 초판본 수록곡을 재판본에서 삭제하고, 재판본 삭제곡을 증보수정본에서 복구하는 재귀적 과정에 주목하는 이유다.

5) 이정석, 「일제강점기 ‘출판법’ 등에 의한 아동문학 탄압 그리고 항거」, 『한국아동문학연구』 36, 2019; 문한별 · 조영렬, 「일제강점기 문학 검열의 자의성과 적용 양상-아동 문학 검열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48, 20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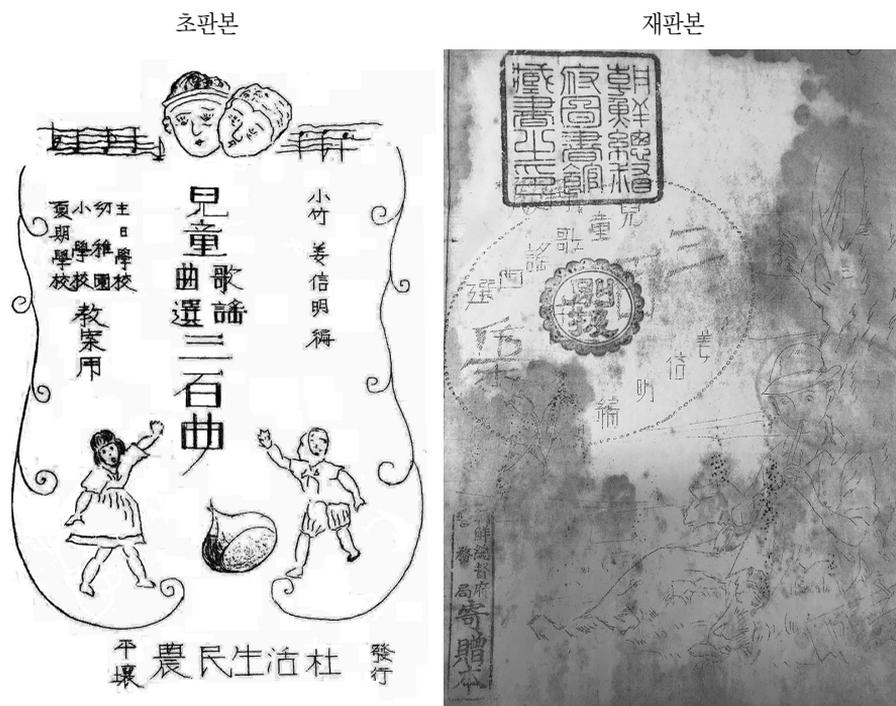
6) 한만수, 「일제 식민지시기 문학검열과 원본 확정」, 『대동문화연구』 5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106면.

7) 문한별, 「『조선출판경찰월보』 수록 아동 서사물의 검열 양상과 의미」, 『우리어문연구』 64, 우리어문학회, 2019, 64면.

8) 문한별, 같은 곳.

II. 판본별 구성 방식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은 1936년에 초판이, 1938년에 재판이, 1940년에 증보수정판이 발간된다. 판본마다 악보의 순서와 배치, 표기법이 바뀌지만 필체와 그림체는 유사하다. 초판본과 재판본의 표지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초판본과 재판본의 표지

초판본의 표지에는 “主日學校 幼稚園 小學校 夏期學校 校案用”으로 “小竹 姜信明”이 편찬한 “兒童歌謠曲選 三百曲”을 “平壤 農民生活社”에서 발행한 사실을 밝혀 놓았다. 다음 면에는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을 “朴泰俊 先生게 드리나이다”라고 써 놓았다. 박태준은 강신명이 계성중학교 재학 당시 음악 교사였다. 이 표기는 초판본에만 보인다. 다음 면에는 5면에 걸쳐 목차를 제시한 후 「兒童歌謠曲選 三百曲을 내어

놓으면서」라는 제목으로, “一九三六·一·十” “柳京 一隅에서 강신명 識”⁹⁾으로 써 놓았다. 뒷면의 판권지에는 발행소는 평양의 農民生活社, 인쇄일은 1936년 1월 10일, 발행일은 1936년 1월 15일, 인쇄인은 姜信明·姜文求, 편집 겸 발행인은 尹山溫, 정가는 이원팔십전으로 표기해 놓았다.

재판본의 표지에는 “姜信明 編” “兒童歌謠曲選 三百曲集”만 표기해 놓았다. 조선 총독부 도서관 직인과 함께 “朝鮮總督府 警務局 寄贈本”¹⁰⁾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표지 다음 면의 상단에 초판본의 머리말 「兒童歌謠曲選 三百曲을 내어 놓으면서」를 그대로 수록하되 서력 표기를 일본 연호 표기인 “昭和 十一年 一月 十日”로 바꾸었다. 하단에는 재판본의 머리말인 「再版에 際하여」를 “昭和 十三年 十月 一日 農民生活社長 柳詔 識”이라고 써 놓고 다음 면에 목차를 제시했다. 뒷면의 판권지에 발행소는 평양의 農民生活社, 인쇄일은 1938년 10월 1일, 발행일은 1938년 10월 10일임을 써 놓았다. 인쇄인은 朴允三, 편집 겸 발행인은 柳詔로 교체하고 정가는 이원으로 내렸다. 인쇄, 편집, 발행인을 교체하여 재판본을 출간했으나 표지와 본문의 글씨체와 그림체가 초판본과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강신명이 직접 글씨를 쓰고 악보를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증보수정본의 속지 상단에는 초판본의 머리말을 서력 날짜까지 복원하여 그대로 배치하되 “원고 등사 맞이기는 1935.12.20.”을 괄호 안에 추가해 넣었다. 초판본에서는 인쇄일, 발행일만 밝혔으나 증보수정본에서는 초판본의 원고 등사를 한 해 전에 끝냈음을 따로 밝히고 있다. 하단에는 「增補訂定版을 내어 보내면서」를 함께 수록하되 날짜는 일본 연호 “昭和 十五年 六月 十五日(二女 昇天 紀念日)”로, 글 쓴 곳은 “東京 一隅”라고 표기하여 강신명이 1940년 동경신학교에 머물며 머리말을 썼음을 밝혀 놓았다. 특이한 점은 날짜 다음에 괄호로 “二女 昇天 紀念日”¹¹⁾이라는 사적인 기록을 남긴 것이다. 증보 수정본을 공공의 자료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기록의 차원에서 정리해 놓은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머리말 하단에는 “내용 목차”를

9) 류경(柳京)은 평양의 다른 이름이다.

10) 국립중앙도서관은 총독부 도서관의 장서를 그대로 이어받아 출판하였기에, 소장 자료에 총독부 도서관 장서 도장이 찍혀 있다. 한만수, 「일제 식민지시기 문학검열과 원본 확정」 51,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58면.

11) 강신명은 1927년 1월 4일 이재림의 딸 이영신과 결혼했다. 둘째 딸은 10세 전후에 세상을 떠난 듯하다.

따로 배치하여 수록곡의 분류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초판본과 재판본에서 내용 목차를 따로 배치하지 않고 목차의 소재목으로만 제시한 점과 차이를 보인다. 뒷면의 판권지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세 종의 판본에는 다음 세 가지 변화가 보인다. 첫째, 초판본과 증보수정본에만 책의 용도를 설명해 놓았다. 초판본 표지에는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이 교회의 “주일학교, 여름학교, 유치원, 소학교” 교사들의 “교안”으로 만들었음을 표기하고, 증보수정본에는 목차 하단에 “이 책을 어린이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또 할 님들에게 밝힘이다”라고 밝혀 놓았으나 재판본에는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강신명이 직접 편집, 발행에 관여한 초판본과 증보수정본에만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이 주일학교, 소학교를 비롯한 각종 학교 교사용 지침서임을 밝혀 놓았다. 재판본에서 삭제한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의 용도를 증보수정본에서 강신명이 주일학교 교사용 교안으로 쓸 것을 재차 강조하는 방식으로 노래책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¹²⁾

둘째, 날짜 표기 방식을 바꿨다. 초판본의 머리말을 쓴 날짜는 서력으로 써놓았으나 재판본에서는 초판본과 재판본 머리말의 날짜를 일본 연호로 바꿨다. 증보수정본에서는 초판본 머리말의 날짜를 서력으로 돌려놓고, 증보수정본 머리말의 날짜만 일본 연호로 썼다. 초판본의 서력 표기를 재판본에서는 일본 연호로 바꿨으나 증보수정본에서는 서력 표기로 복원했다. 날짜 표기 방식에도 검열을 의식하는 정도가 예민하게 반영되고 있다. 앞서 밝힌 바 강신명이 동경에 머물며, 재판본에 삭제된 노래를 증보수정본으로 복원하는 과정이 개인적 차원에서 진행된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셋째, 인쇄 및 발행인을 바꿨다. 초판본의 인쇄인은 姜信明·姜文求였으나 재판본에서는 朴允三¹³⁾으로 바꿨다. 초판본의 편집 겸 발행인은인 尹山溫(G. S. McCune)이었으나 재판본에서는 柳詔(D. N. Lutz)로 바꿨다. 105인 사건에 가담하고 3·1운

12) 증보수정본에 “이녀 승천 기념일”이라는 사적인 기록을 추가해 놓은 점, 목차와 달리 본문의 147면 이하에 악보를 수록하지 않은 채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한 점, 1955~1979년까지 새문안교회의 담임목사로 활동하면서도 정식 출간을 하지 않은 점 등은 강신명이 증보수정본을 사적인 기록 차원에서 따로 정리해 놓은 것임을 짐작케 한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것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직인이 찍힌 재판본이라는 것은 당시 유통된 것이 재판본이었음을 시사한다.

13) 박윤삼(朴允三, 1915.3.14.~1992.3.22.)은 평남 평양시 출생으로 평양 보통학교, 승실중학교, 승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성경구락부 교사(1936.4~1939.3), 승신여학교 음악 강사(1938.4~1939)로 활동하던(최윤실, 앞의 글, 177면) 당시 재판본 발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동에 협조한 이력 등으로 반일 인사라는 낙인이 찍힌 윤산은 대신 농민생활사의 사장 유소가 발행을 담당하고 재판본의 머리말도 직접 썼다.

이처럼 초판본의 인쇄인과 발행인을 교체하고 수록곡의 일부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농민생활사는 재판본을 발간했다. 불온 창가라는 낙인을 떼어내기 위해 출판 관련자를 교체하는 우회로를 택했음은 머리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판본의 머리말은 재판본과 증보수정본에 세 차례 반복 수록하는데, 증보수정본에서는 초판본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괄호를 열어 부연 설명을 해 놓았다. 각 판본 머리말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초판본 머리말

學窓에 있는 우리가 이것이라도 만드려 놓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完全하다고 할 수 없지만은, 學生의 빈 주머니를 가지고 後援도 별로 없이 資料를 엮기에는 때 아닌 땀방울이 적지 않게 흘렀습니다. (중략) 우리가 들어야 할 또한 바쳐야 할 그 노래는 우리가 주어야 하겠습니까. 대개 그들에게는[어린이—地上 天使—들] 노래가 끊어진 까닭이외다. 우리는 이 要求에 應하라고 그들이 불러야 할 노래 三百四十餘曲을 추리어 이 책을 내놓는 것이외다.

姜信明, 「兒童歌謠曲選 三百曲을 내어 놓으면서」,
一九三六.一.十. 柳京一隅에서

② 재판본 머리말

數年前에 本書를 刊行하여 兒童 音樂에 助力하여 왔으며 賣盡되매 이제 다시 各界에 本書의 再出現을 絶叫함에 따라 新曲 數十曲을 加하고 正訂 再發行하게 되니 앞으로 本書가 어린이 音樂에 더욱 多大한 貢獻이 잇기를 바라는 바이다.

今回에 本書의 歌詞를 校正하여 주신 曹應天 博士와 金炯淑 先生의 插畫와 柳詔 夫人의 贊助를 感謝하며 直間接으로 도와주신 朴潤模 氏와 權容鎬 氏께 感謝를 들이는 바입니다.

農民生活社長 柳詔, 「再版에 際하여」, 昭和 十三年 十月 一日

③ 증보수정본

이 책을 또 맨드려 달나는 부탁을 지나간 三四年 동안 많이 받았으나 形便이 할 수 없어 그대로 오든 中 이번 이곳을 오게 되자 간절한 부탁들이 있어서 着

手하게 되었다.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돈이 있대도 물건을 자유로이 또는 용이하게 求하기 어려운 것은 긴 말이 必要치 않을 것이다.

이제 이 책 가운데는 전에 짓은 가급적 그대로 넣었으나 부득불 삭할 것은 삭하고 代身 새로 나온 곡조들을 (主로 少年에 發表되었던 것) 많이 넣었으며 특히 梨花 保育科에서 敎業으로 하였던 것을 많이 얻게 된 것을 기뻐한다.

姜信明, 「增補訂定版을 내어 보내면서」,
昭和 十五年 六月 十五日(二女 昇天 紀念日)

초판본에서는 『兒童歌謠曲選 三百曲』의 발간 주체와 목적, 발간 과정의 어려움, 작품의 출처 등을 밝혔다. 강신명은 1936년 평양신학교의 학생 신분으로 평양 서문밖 교회의 유년부 담당 전도사를 맡은 당시 『兒童歌謠曲選 三百曲』을 발간했다. “學生의 빈 주머니를 가지고 後援도 別로 없이 資料을 엮기”가 여의치 않았다는 진술은 강신명이 평양 지역에 머물며 선교활동을 했기에 경성,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동요 운동과 연계하며 자료를 모으기에는 여의치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그래서인지 계성중학교 재학 당시 음악교사였던 작곡가 박태준, 선배 윤복진의 동요를 집중적으로 수록했다. 윤복진 작사·박태준 작곡으로 발간한 동요집 『중중떼떼중』과 『양양범벽궁』, 강신명이 발간한 『동요 구십구곡』과 『새서방새각시』를 중심으로, 당시 왕성하게 활동한 윤석중의 기출판 동요, 1920~1930년대 신문 잡지에 발표한 동요까지 폭넓게 수록하려 했음을 밝히고 있다.

재판본에서는 강신명이 쓴 초판본의 머리말을 그대로 수록한 후 하단에는 농민생활사 사장 유소가 쓴 머리말을 추가해 놓았다. 초판본의 머리말은 동요곡집 자체의 발간 목적과 구성 방식에 대해 언급했으나 재판본의 머리말은 농민생활사 차원에서 초판본을 수정 재발행한 맥락을 밝히고 있다. 유소는 수년 전에 출간한 초판본이 매진되어 각계에서 재출간을 요청하게 되어 “新曲 數十曲을 加하고 正訂 再發行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일제의 검열에 의해 초판본을 더 이상 유통할 수 없었던 맥락이나 일부 곡이 삭제된 맥락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기존의 노래에 새 노래 22곡을 추가한 증보판이라 하지 않고 “正訂 再發行”이라 밝힌 것은, 검열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노래를 삭제해야 했으며 조웅천이 “歌詞를 校正”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밝히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판본 수록곡의 일부를 덜어내고 문제가 되는 가사를 고쳐 쓰고 새 노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판본을 낸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재판본 발간 과정에서 박윤모, 권용호 등 여럿이 힘을 모았으며, “柳詔 夫人의 贊助”를 받았다고 따로 밝히는 방식으로 선교사인 본인의 아내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왔음을 밝히고 있다. 평양 지역의 기독교계 전체가 참여했음을 밝히는 방식으로, 재판본 발간 과정에서 강신명이 배제된 모양새를 취했다.

증보수정본에 새로 추가한 머리말은 다시 강신명이 썼다. “이 책을 또 맨드러 달나는 부탁을 지나간 三四年 동안 많이 받았으나 形便이 할 수 없어 그대로 오든 中 이번 이곳을 오게 되자 간절한 부탁들이 있어서 着手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1940년 시점에서 지나간 삼사년 동안이라는 것은 1936~1939년을 뜻한다. 1936년 초판본을 발간한 이래 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形便이 할 수 없”었다는 것은 1936년의 초판본 그대로 발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이번 이곳을 오게 되”었다는 것은 평양신학교에서 휴가를 얻어 1940년 12월까지 8개월간 동경신학교에 머물게 된 것을 뜻한다. 증보수정본을 만들면서 “전에 것은 가급적 그대로 넣었으나 부득불 삭제할 것은 삭”했다는 것은 재판본에서 삭제한 노래를 가능한 한 복원하되, 그럼에도 여전히 삭제해야만 했던 작품이 있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代身 새로 나온 곡조들을 (主로 少年에 發表되었든 것) 많이 넣었으며 특히 梨花 保育科에서 敎業으로 하였든 것을 많이 얻게 된 것을 기뻐한다”고 써놓음으로써 초판본에 수록한 원곡을 되살리는 동시에 새 곡을 추가하였음을 밝히고, 이 책이 어린이를 지도하는 교사에게 도움이 되기를, 어린이들이 천성을 지키며 사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이처럼 판본 세 종의 머리말을 통해, 초판본의 인쇄 및 발행인을 교체하고 일부 노래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재판본을 발행해야 했던 정황, 출판 지역을 평양에서 동경으로 바꿔 증보수정본을 발간하면서도 삭제할 노래가 있었음을 밝혔다. 머리말에서 밝힌 진술은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의 세 종의 판본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현됐다.

〈표 1〉 판본별 분류 기준 및 수록곡 수

	초판본	재판본	증보수정본
발행 년도	1936년	1938년	1940년
발행 지	평양	평양	동경

분류 항목	6항목		6항목		7항목	
	분류	주일학교편	90곡	주일학교	86곡	주일학교편 ¹⁵⁾
봄철 노래들		46곡	봄철 노래들	48곡	유치원편	28곡
여름철 노래들		47곡	여름철 노래들	49곡	봄 노래편	62곡
가을철 노래들		44곡	가을철 노래들	43곡	여름 노래편	81곡
겨울철 노래들		28곡	겨울철 노래들	29곡	가을 노래	52곡
노래잡채편		78곡(83) ¹⁴⁾	혼잡편	26곡	겨울 노래편	32곡
					비빔잡채편	43곡
총	목차 333곡(본문 338곡)		281(중복곡 제외 280곡)		399곡	
	총 439(중복곡 제외) ¹⁶⁾					

초판본과 재판본은 수록곡을 6범주로, 증보수정본은 7범주로 나눴다. 증보수정본에서는 이전 판본의 여름 편과 노래잡채 편(혼잡편)에 수록한 노래 중 일부를 뽑아 유치원 편으로 재배치하여 7범주로 세분화하고, 동일한 제목의 노래를 한데 모아 일련번호를 매기는 방식으로 정교화 작업을 해 놓았다. 주일학교 편에는 주일학교에 온 어린이가 부를 종교용, 행사용 노래를 배치하고, 봄·여름·가을·겨울 편에는 1920~1930년대에 통용된 동요를 계절별로 배치했으며, 계절별로 분류하기 애매한 노래는 노래잡채편(혼잡편·비빔잡채편)에 배치했다.

초판본의 목차에는 333곡을 제시했으나 본문에는 목차에 없는 노래 5곡을 추가하여 338곡을 수록했다. 재판본에는 초판본에 있던 81곡을 삭제하고 초판본에 있던 257곡(초판본·재판본 수록 3곡, 초판본·재판본·증보수정본 수록 254곡), 재판본 신출곡 23곡(재판본 신출곡 22곡, 재판본·증보수정본 수록 1곡)을 포함한 281곡을 수록했다. 수록한 노래는 총 281곡이지만 중복 수록곡¹⁷⁾을 제외하면 실제 수록된 노래는 280곡이다. 증보수정본에는 재판본에서 삭제한 66곡을 추가하고 기존의 255

14) 목차에는 없는데 본문에는 배치한 노래가 5곡이다.

15) 초판본과 달리, 같은 제목의 노래를 한데 모아서 일련번호를 붙여 놓았다.

16) 연구 과정에서 입수한 증보수정본은 148면부터 누락되어 있기에, 이곳에 수록된 27곡의 악보와 가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은 판본마다 제목을 바꾼 경우가 많기에, 누락된 부분의 가사를 확인하게 되면 전체 수록곡은 439곡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17) <재판본 13. 생일축하가(3)>는 <재판본 85. 생일축하가>와 동일곡이다. 이 노래는 <초판본 59. 생일축하가(7)>와 동일하다.

곡(재판본·증보수정본 수록 1곡, 초판본·재판본·증보수정본 수록 254곡)과 신곡 78곡을 추가하여 총 399곡을 수록했다. 목차에는 399곡을 제시했으나 본문에는 147면까지 372곡만 수록돼 있다. 148면부터 수록돼야 할 27곡은 악보가 없다. 동경에 머물던 강신명이 본문을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강신명 목사가 소유하고 있던 원본을 소장한 홍정수 선생님의 의하면, 증보 수정본의 보관상태는 좋은 편이고 낙장의 흔적은 없다고 한다. 증보수정본은 편찬자인 강신명이 스스로 등사하되 정식 출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완으로 마무리했기에 맨 뒤의 판권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각 판본별로 들고나는 노래 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판본별 수록곡의 변화

*‘초’: 초판본, ‘재’: 재판본, ‘증’: 증보수정본

	①초 유일곡	②초·증 수록곡	③재 삭제곡	④초·재 수록곡	⑤재·증 수록곡	⑥초·재·증 수록곡	⑦재 신출곡	⑧증 신출곡
주일	2	10	12	2		76	8	15
유치원								9
봄		3	3			43	5	12
여름	1	3	4	1	1	42	5	21
가을		2	2			42		5
겨울						28	1	1
잡채	12	48	60			23	3	15
합	15곡 (4%)	66곡 (20%)	81곡 (24%)	3곡 (0.8%)	1곡 (0.2%)	254곡 (74%)	22곡 (7%)	78곡 (24%)

초판본에는 333곡(338곡), 재판본에는 281곡(280곡), 증보수정본에는 399곡을 수록했다. 세 종의 판본에 수록한 노래는 총 439곡이다. 중복곡을 제외한 숫자다. 초판본 338곡 중 ①초판본에만 수록한 노래는 15곡이고, ②재판본에서 삭제했다가 증보수정본에 재수록한 곡은 66곡이다. ③이 둘을 합친 81곡을 재판본에서 삭제했다. 재판본 삭제곡을 통해 일제가 규정한 ‘불온성’을 의식하며 자체 삭제한 노래의 특징을 살필 수 있다. ④초·재판본에 수록한 곡은 3곡이고 ⑤재·증보수정본에 수록한 곡은 1곡이며 ⑥초·재·증보수정본에 모두 수록한 곡은 254곡이다. 이들

258곡은 일제강점기의 검열 정책과 무관한, 불온의 범주에 들지 않은 노래라 볼 수 있다. ⑦재판본의 신출곡은 22곡이고 ⑧증보수정본의 신출곡은 78곡이다. 재판본 신출곡은 초판본에서 검열로 인해 삭제한 곡을 임시 대체한 노래로, 이후 증보수정본에는 수록하지 않았다. 재판 신출곡 중 증보수정본에도 수록한 노래는 1곡에 불과하다. 재판 신출곡을 거둬내고 증보수정본에 새 노래를 추가한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Ⅲ. 판본별 수록곡의 특징

이 장에서는 초판본 유일곡을 분석하여 당시 일제가 규정한 불온 창가의 내포를 살피고자 한다. 당시 『아동가요곡집 삼백곡』에 대해 「민족주의 운동 사건 검거표」¹⁸⁾에서는 “불온 창가”라고만 규정했을 뿐 구체적인 노래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아동가요곡집 삼백곡』을 편찬한 강신명이 벌금형을 받게 되자 농민생활사 측은 일제의 검열에 거슬릴 만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삭제하여 재판본을 발간한다. 별도의 삭제, 압수, 몰수, 폐간 등의 조치가 없었음에도 농민생활사 측이 일제가 규정한 불온성을 상상하며 해당 노래를 삭제한 것이다. 따라서 1936년 평양에서 발간한 초판본 유일곡과 1940년 동경에서 발간한 증보수정본 복구곡의 차이에 주목하면, 식민지 조선의 평양 지역과 제국의 수도 동경 지역의 차이가 ‘불온’의 해석에 끼친 영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일제가 규정하고 조선인이 상상하며 재구성한 불온의 일시성·자의성·불안정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1. 재판본 삭제곡의 불온성

초판본에 수록한 후 재판본과 증보수정본에서 삭제한 15곡은 다음과 같다. 곡의 순서는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의 수록 순서에 따랐다.

18) 국사편찬위원회,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자료」, 『한국독립운동사』 5권, 국사편찬위원회, 488면.

초판본 유일곡		
주일	2	조선의 꽃, 기농소년가
여름	1	공백(지위집)
잡채	12	어머니, 비밀, 호랑이의 생일, 둥둥둥, 정직한 나무꾼, 보견 체조가(악곡만), 무도곡, 소년가, 자수가, 우리의 우습, 메리야, 닭알

재판본에서 삭제한 <조선의 꽃>은 우리의 조상이 “반만년 사라”오고, 우리가 자라는 곳이 조선임을 밝힌다.

1. 조선은 우리가 자라는 곧 반만년 사라온 조선이라네
 2. 부르기 좋아라 조선이라고 뜻은 더 좋다네 아춤이라네
 3. 향내를 펼치세 이 강산에 하늘서 주님은 내려 보시네
 4. 우리는 두 손에 복음을 들고 주님만 따라서 나아가세
 5. 놀린 자 알는 자 우리의 동무 이 향내 이 사랑 전하야 주세
- 후렴. 동무야 우리는 조선의 꽃 이대로 나가면 하늘꽃 되리

이승원 가, 구왕삼 곡 <조선의 꽃>

아침이라는 뜻을 지닌 조선 땅에 비록 지금은 “놀린 자 알는 자”가 존재하나 주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내릴 것이며, 억압을 받고 병들어 신음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구심점을 따라 복음을 펼치면, “조선의 꽃”인 우리는 장차 “하늘꽃”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전하고 있다. 조선, 반만년이라는 단어 외에는 그리 문제될 게 없어 보임에도 “조선의 꽃”이라는 제목의 상징성 때문인지, 재판에서 삭제되고 증보수정본에서도 복구되지 않았다.

1. 지구 동쪽 금수강산 삼천리조선 옛적부터 땅을 파서 살든 이 범을
천대만대 누린 것은 기농소년회 만세만석 굳은 터에 높이 세우세
빠속까지 저린 정신 이 땅에 쏟아 태산도 녹으리니 골고다의 피
흘러라 이 맘에 넘쳐라 이 땅에 만세만세 불너라 기농소년회
2. 밤낮으로 쉬지 안는 동해의 물결 이 땅아 굳어라고 소리치누나
광이 메고 달려라 이 땅의 아들 십자가의 붉은 빛은 우리의 희망

쓰러진 오막사리 가마귀 우는 낡아지는 동리라고 낙심 마러라
동쪽 하늘 해빛살노 기운 주시는 하나님에 우리 뒤에 힘을 쓰신다
유재기 말 <기농 소년가>

<기농소년가>는 “옛적부터 땅을 파서 살”며 “천대만대 누”려온 “금수강산 삼천리 조선”에 “기농소년회”를 세우자는 내용이다. 기농소년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적 움직임 바탕으로 만세를 부를 날이 오기를 희망하는 내용이다. “쓰러진 오막사리 낡아지는 동리”라는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낙심” 말고 “광이 메고 달리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독려하고 있다. 젊은이가 될 소년들이 현실에 주저앉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뒤에 힘을 쓰신다”는 믿음과 희망 속에서 소년들이 긍정의 기운을 품고 실천하기를 촉구하는 노래다. 그 중심에 존재하는 하나님은 종교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식민지 현실의 역사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1. 아름다운 무궁화 동산 안에서 활발하게 뛰어노는 우리 소년들
무럭무럭 자라며 곱게 자라서 우리 앞해 온 사업을 일우어 보자
2. 우리 우슴 소리에 꿈은 꽃 피고 우리 눈물 방울에는 푸른 싹 나서
쓸쓸하고 황막한 우리 동산을 향내 나고 생기 잇게 꿈이어 보자

<소년가>

<소년가>는 무궁화 동산에서 뛰노는 소년이 성장하여, 현재의 황막한 동산을 생기 있게 만들자고 청유하는 내용이다. 반만년 살아온 조선 땅에서, 기농소년회를 중심으로 온 사업을 펼치며 미래의 꿈과 꽃을 피우자는 성장과 생명의 기운을 전달하는 노래다. <우리의 우슴>은 “우리의 눈물이 떠러질 때마다 또다시 소생하는 이천만”의 삶을 무궁화에 빗대고 민족적 정통성을 “이천만의 고려족”으로까지 소급하여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구한 역사적 토대 위에 새 삶의 토대를 세우자는 내용이다.

이 외에 <동동동>은 아기를 업고 노동을 하는 여성의 고된 삶을 노래하고 <어머니> <메리아>는 사별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다. <호랑이의 생일>은 각색 짐승들의 특징을 나열한 노래이고 <정직한 나무꾼>은 금도끼 은도끼 설화로 만든 노래다. <비밀>은 설레는 비밀을 <무도곡>은 숲속 놀이를, <닭알>은 알을 낳는 닭의

모습을 묘사한 노래고 <자장 노래> <자수가>는 자장가이고 <보건 체조가>는 가사 없이 악곡만 수록돼 있다.

재판에서 삭제한 곡은 조선의 역사와 미래를 노래하고 이 땅을 끌고 갈 주체가 농촌의 아들임을 강조하며 하나님, 기농소년회를 구심점으로 함께 하자는 내용이다. 가난한 상태에 머물며 시간을 허송하거나 타향에 사는 서러움, 사별의 슬픔에 머물지 말 것을 강조한다. 미래에 대한 낙관과 희망을 이야기하거나 비극적 현실을 드러낸 노래를 삭제하고, ‘조선’ ‘우리 동포’ ‘이 땅 사람’ ‘무궁화 삼천리’ ‘이천만 고려족’ ‘암흑의 장막이 걷힌 찬란한 금수강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도 삭제했다. 이러한 내용이 일제가 규정한 불온의 내포에 해당할 것이라 상상하며 재판본에서 삭제한 것이다. 식민지 현실을 환기하지 않는 자장가, 전래 동요, 동심, 장난, 사물의 특징, 자연 현상을 노래한 곡도 일부 삭제했다.

2. 증보수정본 복구곡의 허용성

재판본 삭제곡 중 증보수정본에서 복구한 66곡은 다음과 같다.

증보수정본 복간곡		
주일	10	교가 4, 아이들의 동무, 당신의 아이, 우승가 4, 농촌가, 절제운동가, 금주가, 구락부 노래, 저 별을 보라, 왕이 오셨다
봄	3	우리 아기의 노래[←조선 아기의 노래], 어린이 노래[←조선 어린이 노래], 애기 일꾼
여름	3	우리 아가야[←조선 아가야], 제비 남매, 분수
가을	2	세월아 가지 마라, 종종 떼떼중
잡채	48	대낮에 생긴 일, 골목대장, 오뚝이, 시계, 돌맹이, 농촌의 아들, 교문 밖에서, 참새야, 꿀돼지, 한말한글, 물망초의 그늘, 물새, 새떼, 흐르는 시내, 애굽의 밤, 소년 행진곡, 금수강산, 남매 고별곡, 자장가, 적은 배, 단추, 눈 먼 생쥐, 농촌 소년가, 자장가, 어린 동무, 고삐 든 애기, Snail game, 열 적은 아이, 목수의 노래, 금사조, 우습세다 하하하, 유치원 아이, 참대배, 방앗간에 불 붙는다, 유성, 내가 물고기가 된다면, 좋은 날, 보건 체조가, 수노리, 물 갖는 처녀, 별나라, 자장 노래, 두 아가, 오늘도 무덤에서, 방울 소리, 술래잡기 노래, 송편, 밝앙 조히 착착 파란 조히 착착

강신명은 <절제운동가> <금주가>를 증보수정본에서 복구하며 가사의 일부를 교체한다. 수정한 가사에는 () 표시까지 해 놓았다. 참고할 수 있도록 초판본의 원 가사는 [←] 안에 밝혀 둔다.

1. 꿈을 깨여라 동포여 지금이 어느 때라 술 먹나
개인과 민족 멸망케 하는 자 그 일을 알콜이라
2. 입에 더러운 담배를 뱉 대리 용단하라 형제여
몸과 정신을 마비케 하는 것 담배란 독약이라
후. 술잔을 깨쳐라 담배대를 떨쳐바리라
(우리 동포들의)[←이천만 사람의] 살 길은 절제운동 만만세
양주동 · El Nathan <절제운동가>
3. 예로부터 일제히 사업하는 자 술을 먹고 성공한 사람 없도다
(우리)[←조선] 사회 구하는 길이 있으니 여보시오 동포여 금주합세다
박태준 사 · 곡 <금주가>

초판본의 “이천만 사람”을 “우리 동포들”로, “조선”은 “우리”로 수정했다. 원곡과 다르게 바꾼 단어에 () 표시까지 해 놓음으로써 이 부분의 가사를 바꾸었음을 환기하고 있다. 이천만과 조선으로 특정되는 식민 조선의 특수성을 거세하고 “우리 동포들”과 “우리”라는 보통 명사의 범칭으로 교체하여 누구든 금주 금연을 해야 한다는 일반적 내용으로 바꿨다. 금주 금연을 해야 하는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 금주 금연이 지닌 반일 정서와의 연결 고리를 삭제한 것이다. “절제운동은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시키며 경제력 향상과 정신적 각성을 꾀한 점에서 민족주의계에서 유행한 실력양성운동의 연장선상”¹⁹⁾에서 “농촌운동으로, 청년운동으로, 기독교의 사회운동으로 확대 전개되었”²⁰⁾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에서 절제운동이 지니는 특수성을 지운

19) 윤은순, 「1920~1930년대 기독교 절제운동의 논리와 양상-금주 금연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9, 134면. 당시 절제운동은 기독교인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일로 전개한 것으로, 개인 및 민족의 정신 개조, 폐습 타파를 목적으로 한 윤리실천 운동이었다. 민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허욕, 부절제 등의 도덕적·정신적 타락이 작용한 것이므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이 융성하는 길이라고 여겼다. 159~160면.

20) 윤은순, 앞의 글, 128면.

것이다. 앞의 두 곡 외에는 가사가 바뀐 부분에 () 표시를 해 놓지 않았다.

이 나라[←조선의] 애기 일꾼들	박소농 · 강신명 <애기 일꾼>
화려한[←삼천리] 강산에 자라는 우리	鄭□□ · 현제명 <보견 체조가>
사람들의[←이 땅 사람] 큰일을 위해	이성주 · 탁창신 <구락부 노래>

고유명사 “조선” 대신 보통명사 “이 나라”로, 조선 땅을 환기하는 “삼천리” 대신 일반적인 형용사 “화려한”으로, “이 땅 사람”이라는 구체적 지정 대신 “사람들”이라는 보통 명사로 교체하여 조선의 특수성을 거세했다. 가사만 교체한 것이 아니라 노래 제목도 바뀌었다. 초판본의 <조선 아기의 노래>는 <우리 아기의 노래>로, <조선 아가야>는 <우리 아가야>로, <조선 어린이 노래>는 <어린이 노래>로 수정했다. 가사와 마찬가지로 제목에서도 “조선”을 “우리”로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꽃피는 이 강산[←삼천리] 방방곡곡
 이 귀여운[←조선의] 아가야 우리 아가야
 손과 손을 잡고서 손과 손을 잡고서
 꽃피는 동산에 봄마중을 갈가나
 열사열사 좋구나 앞날의 세계[←조선]는
 우리의 것 열사열사 좋구나 저열시구 좋구나
 남궁량 · 권태호 <우리[←조선] 아기의 노래>

조선의 아가들이 손을 잡고 봄마중 가고 “앞날의 조선은 우리의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긍정과 희망을 표현한 노래에서 “삼천리”는 “이 강산”으로, “조선의”는 “귀여운”으로, “조선”은 “세계”로 교체했다. 초판본에 명시한 조선이라는 단어, 조선에 대한 은유적 표현, 삼천만이 환기하는 조선의 인구수 등을 보통명사로 교체하여 조선적 특수성을 삭제했다. <조선 어린이 노래>는 제목만 <어린이 노래>로 바꾸고 가사는 그대로 뒀다. “방실방실 자리” “포들포들 살 오”르고 “반들반들 셋별눈”을 지닌 어린이들이 “동편나라”의 “메마른 땅”에 “새날을 올려주”는 주체로 성장하기 바라는 노래인데, “마른” “어둔” “길 잃은”과 같이 조선의 암울한 상황을 환기하는 가사는 그대로 둔 채 제목만 수정했기에, 목차만 훑어보면 일반적인 어린이 노래처럼 보인다.

이로 보건대, 금주 금연 등의 절제 운동 때문에 『아동가요곡선 삼백곡』 초판본을 문제 삼은 것은 표면적 빌미였던 듯하다. 이러한 맥락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농민생활사 측은 증보수정본을 발간하면서 금주 금연 관련 절제가를 복원하되, 조선을 환기하는 단어만 보통명사로 교체하여 재판의 출간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일제가 규정한 불온의 방침이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데 있었음을 드러낸다. 그런데 복원한 노래 중에는 조선의 지명을 노출한 곡도 일부 보인다.

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학교 만세
2. 우리학교 교장 되신 구세주 예수의
귀한 음성 듣는 대로 주를 따라 가세
3. 마귀 권세 깨트리고 승전가 부를 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 찬송하리로다
후렴. 기쁘지고 아름다운[←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에
우리[地名] 유년 주일학교 영원토록 만세

<교가 4>

재판본에서 삭제한 곡을 증보수정본으로 복원할 때, 조선을 환기한 단어를 보통명사로 대체한 것과 달리 <교가 4>에서는 애국가 가사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학교 만세”라는 구문을 그대로 쓰되, “나라”만 “학교”로 교체했다. 애국가 가사는 그대로 살려놓고 초판본 후렴구의 “무궁화 삼천리”만 증보수정본에서 “기쁘지고 아름다운”으로 교체했다. 목차에는 <교가> 시리즈에 일련번호를 달아 놓았기에 가사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조선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게 해 놓았다.

이처럼 증보수정본에서 복원한 노래는 식민지인의 가난과 설움을 토로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새 시대를 열 것을 바라며 예수를 구심점으로 새 삶을 꿈꾸는 내용이다. “월사금이 없어서 학교 문밖에 나 혼자” 선 채 눈물 흘리고(<교문 밖에서>), “타향에 살며 설음 받는 불상한 우리”이지만 “광채 찬란한 저 별을”(<저 별을 보라>) 보며 희망을 품고, 지금은 비록 “가난하물 몸 약하물 없이 역여도” “나발 불고 북 울리며 거러 나가”(<소년 행진곡>)자며 희망의 꿈꾸는 노래를 복원했다.

이와 함께 “옛날에 자랑하던 찬란한 문화”가 “이즈러진” (<애굽의 밤>) 애굽의 역사를 제시함으로써, 역사의 흥망성쇠를 깨닫게 했다. 암울한 현실에서 맞을 밝은 미래에 대한 상상과 찬란한 과거의 문명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허망함을 모두 제시하여, 미래를 맞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식으로 증보수정본을 구성했다.

이때 구심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예수다. 예수는 “우리”(<아이들의 동무> <당신의 아이>)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며 “삼천리의 동산”에서 “밭도 갈고 논도 풀어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심고 매고 거두”(<농촌가>)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꿈을 꾸고 실현할 주체는 미래 세대임을 여러 차례 환기한다. “배달의 어린 동무”(<금수강산>)가 “이 땅을 끌고 갈 농촌의 아들”(<농촌 소년가>, <농촌의 아들>)로 성장하여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기쁨으로 일”(<목수의 노래>)하는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날 보고 꾸지람 마소 웃고름 땀 것이 그리 죄 되오”(<골목대장>)라며 어린이의 당찬 모습을 직접 화법으로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골목대장>) “부뜨막에 꿰어논 누룽쟁이를 꿀꿀꿀 들락날락 다 먹고 도망”(<꿀돼지>)가는 욕심쟁이 오빠의 모습을 익살스레 묘사하여 어린이의 해맑음을 표현하고, 일상에서 쓰는 말과 글의 이름이 한말과 한글임을 알려주고(<한말한글>) 가감승제의 셈법과 측량법을 익히게 하고(<열 적은 아이> <수 노래>), 세상과 자연과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일상 세태와 풍속을 접할 수 있도록 유희요, 원무곡, 자장가 등을 다수 복원했다.

증보수정본에서는 금주 금연 등의 절제기를 복원하되 조선, 삼천리, 이천만이라는 단어는 우리라는 보통 명사로 교체했다. 때문에 사전 출판 허가를 받아 『아동가요곡집 삼백곡』 재판본을 교회 주일학교 교재로 활용할 수 있었다. 조선을 환기하는 노래를 수록하여 노래책 자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보다, 일제가 문제 삼을 법한 단어를 삭제하여 주일학교에서 노래책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래의 내용 보다는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 모여 함께 노래 부르는 행위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노래는 어린이에게 기독교의 교리, 계몽적·교육적 내용을 전파하기 수월한 매체였기 때문이다.

3. 재판본 · 증보수정본 신출곡의 일반적 보편성

재판본 신출곡은 22곡, 증보수정본 신출곡은 78곡이다. 재판본 신출곡 중 증보수정본에도 수록한 곡은 <저 바다> 1곡이다.

재판본 신출곡			증보수정본 신출곡	
범주	곡수		곡수	작품명
주일	8	예수 내 친구, 개회 찬미, 썬타크로스, 강생한 날, 이 몸을 들이자, 성탄 행진, 예수의 거룩한 일흠,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15	어대던지 성탄일, 감사하세, 성탄 노래, 예수 탄일, 구주 탄일, 아이들아 찬송하라, 작은 목자, 예수같이 되기 원함, 더위도 배우세, 예수 나시든 날 밤, 기쁜 종, 주를 찬양, 기도, 우승가, 잘 가시오
봄	5	즐거운 봄, 봄, 아침, 뽕앙 비 파랑비, 봄	12	봄 나들이, 산 넘어온 송아지, 봄 노래, 봄빛, 꽃, 꽃초롱, 좋은 아침, 봄동산, 봄을 주신 하나님, 봄비, 봄노래, 참새 학교
여름	5	소낙비, 물새 발자국, 물작난, 배젓기, 힌구름	21	자장가, 여름비, 빗방울, 동무야 같이 놀자, 애기별, 병아리, 등댓불, 아카시아, 물오리, 당초밭, 한송이 월계, 까치, 산으로 바다로, 참새, 목장의 저녁, 유월, 조희배, 숨기내기, 숨바꼭질, 돌아라, The Rain on the Roof
가을			5	귀뜨리, 망향가, 자장노래, 자장노래, 구월산 총각의 노래
겨울	1	바람아 불지 마라	1	외딴집
잡채	3	어린 병정, 달, 썸 없는 개	15	애기 신문, 아가, 샘, 우리 아가, 어머니의 젖, 연기야, 새양쥐, 공패, 기쁜 종, 수선사, 새해, 저녁피리, 기차, 예배당중
유치원			9	유치원가, 유치원가, 우리 유치원, 뽕글뽕글 돌아라, 뽕뽕, 뽕뽕 병아리, 참새 형제, 시계, 우리 아기 행진곡
재판본 · 증보수정본 신출곡				
여름	1	저 바다		

재판본의 주일학교 편에 새로 수록한 노래는 예수가 내 친구이기에 두려움 없이

안심하며 찬양하고(<예수 내 친구> <예수의 거룩한 일흠>), 인간을 위해 피 흘린 예수에게 내 몸을 드리고(<이 몸을 들이자>), 예수의 피를 받은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는(<주의 진로를 면하겠네>) 내용이거나 성탄을 축하하는(<산타클로스> <강생한 날> <성탄행진>) 내용이다. 예수의 삶을 기억하며 현세에서의 삶을 위로받는 종교적 내용이 대부분으로, 현실과 직접적 관련을 맺는 단어나 상황은 노출하지 않았다. 그 외의 편에 수록한 동요는 각 계절에 상응하는 자연, 사물의 특징을 드러낸 내용이 대부분이다. 사계절과 자연, 사물, 동물 등의 소재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판의 인쇄 및 발간을 담당한 이가 박윤삼이다. 그는 초판본에는 <뵘올레헨> <교가2> <생일축하3> 3곡만 작곡해서 수록했으나 재판본에서는 주일학교 편 외에도 봄, 여름, 겨울 편에 작사(2편) 작곡(7편)한 노래를 수록하는 방식으로 초판본 삭제곡의 빈자리를 메웠다. 재판본에 추가한 박윤삼의 노래는 강신명이 증보수정본을 발간하며 제외했다. 재판본은 교회 주일학교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강신명을 제외한 교회 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발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판본 신출곡에 나타난 특징은 증보수정판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예수의 탄생(<예수 탄생> <구주 탄일> <아이들이 찬송하라> 등), 성탄 축하곡(<어대든지 성탄일> <성탄노래> 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감사하세>), 여름성경학교 노래(<더워도 배우세>)를 비롯한 각종 의식용 노래(<기도> <잘 가시요>)가 대부분이다. 주일학교 진행 순서에 맞는 곡들을 여러 편 제공하여 취사선택하게 해 놓았다.²¹⁾ 주일학교 편 외에서도 재판본에서와 같이 사계절로 구분하여 식물과 사물의 특징을 드러내거나 숨바꼭질 등의 놀이를 소개하거나 자장가를 추가했다.

재판과 증보수정판의 신출곡에는 조선을 환기하는 단어가 일절 없다. 제국과 식민지의 구분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라면, 주일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가사로 노래를 만들었다.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을 거세하고 어린이가 부를 노래의 일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사를 추가했다. 계절의 순환 속에서 마주치는 자연과 사물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되, 근본을 탐구하기보다는 현상 자체를 수용하는 수준에 머물게 했다. 자연의 변화 속에서 보편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사물의 특징을 드러낸 노래는 일제가 규정한 불온성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1) 홍정수, 『한국교회음악사』, 가온음, 2021, 177면.

특이한 점은 재판본과 증보수정본의 신출곡이 유사한 성격을 지님에도, 재판 신출곡 22곡을 삭제하고 증보수정본에 78곡의 신출곡을 대거 수록한 점이다. 재판본 신출곡의 내용이 시의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증보수정본의 내용이 새롭거나 독창적인 것도 아님에도 1곡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했다. 앞서 밝혔듯, 검열을 피하기 위해 발간한 재판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본 신출곡 중 증보수정본에 유일하게 수록된 <저 바다>는 고기잡이 배를 타고 나가 돌아오지 않는 언니에 대한 그리움과 바다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노래다. 이 노래만을 증보수정본에 재수록하여 바닷가 마을 사람들의 삶의 세목을 드러냈다. 이 외에는 인간사의 세목이나, 시공간의 특수성을 드러낸 노래는 없다.

IV. 식민지 조선의 불온성

서북 지역은 기독교의 교세가 전국적으로 가장 강한 곳이었다. 선천은 1911년 105인 사건의 발단이 되고 1919년 3·1운동 때 평안도 지역을 선도할 정도로 항일운동이 활발했다.²²⁾ 이곳에서 기독교계의 각 단체²³⁾는 절제운동을 전개했다. 1928년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한 금주단연동맹이 기관지 『절제생활』을 발행하고 1932년에는 평양신학교에서 조선기독교 절제운동회를 만들었다.²⁴⁾ 조선인의 음주 흡연이 일제의 조세 수입²⁵⁾을 늘리면서 농촌의 궁핍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한 달에 60전이 드는

22) 105인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 중 23명이 선천 출신이었을 정도로 주도적이었다. 송재원, 「3·1운동 이후 일제의 서북지방 기독교 통제와 '선천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 33호,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20.9, 133~144면.

23)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대한제국 시절 YMCA와 신민회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05인 사건과 3·1운동 이후 흥업구락부를 중심으로 뭉친 이승만 계열과 수양동우회로 모인 안창호 계열로 나뉘어 이승만 계열은 주로 YMCA 농촌사업을, 안창호 계열은 장로교회 농촌운동을 전개하며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걸쳐 한국기독교의 농촌운동을 주도했다. 강성호, 「식민지 조선의 기독교, 국가주의를 받아들이다」, 『주간경향』 1245호, 2017.9.26.

24) 1930년대의 주세 수입이 전체 조세 수입 중 30%에 이를 차지할 정도였다. 윤은순, 「1920~1930년대 기독교 절제운동의 논리와 양상-금주금연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9, 149면.

25) 김영미, 「식민지 시기 주세업 관련 잡지를 통해 본 조선주조협회의 활동양상과 성격」, 『한일관계

자녀 교육비²⁶⁾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절제 운동을 전개했고,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에도 관련 노래를 수록하여 성인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절제 생활을 내면화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예의주시하던 일제는 절제 운동과 관련된 기독교 각 단체의 일련의 활동을 불온한 것으로 규정했다.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자료」에 그 구체적 내용이 적시돼 있다.

宣川邑 所在 基督青年勉勵會 平北聯合會 宣川基督青年會 等 基督教系 各種 團體에서는 本年 六月 舊端午節을 利用하여 禁酒禁煙運動 實施에 當하여 不穩 宣傳 冊자를 無許可 出版하고 또 許可 없이 不穩 唱歌를 印刷 頒布한 外 六月 二八 日 朱德均은 同友會 事件의 檢舉를 不服하여 宣川邑內 日本人 經營 松竹食堂 入口 에 「大韓獨立萬歲 宣川有志 一同」 云云이라고 不穩한 落書를 하여 公安을 害한 者이다.²⁷⁾

일제는 기독교의 여러 단체가 절제 운동을 위해 제작한 빠라를 무허가 출판한 사실과 함께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을 당국의 허락 없이 인쇄 반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출판법에 의하면, 원고에 출판허가원을 첨부하여 도를 경유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 출판 전 검열을 받아야 했는데²⁸⁾ 『아동가요곡집 삼백곡』을 발간할 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교회에서 프린트해서 쓰는 찬양곡까지 인쇄물로 간주하고 출판법 위반으로 취체하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주일학교 어린이를 위해 만든 동요선집까지 ‘불온’으로 규정하고 출판법 위반으로 강신명을 정주지청에 송치하여 벌금 30원을 선고한다.²⁹⁾

불온 창가라는 규정은 선천 지역의 반일 운동, 기독교의 절제 운동과 『아동가요곡집 삼백곡』을 한데 엮은 데서 비롯됐다. 불온 창가라는 판단의 근거가 『아동가요곡집 삼백곡』의 수록곡 자체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동가요곡집 삼백곡』

사연구』 71, 한일관계사학회, 2021, 376~391면.

26) 이대위, 「조선교회와 절제운동」, 『종교시보』 3권 5호, 1934.5, 9면.

27) 국사편찬위원회,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자료」, 『한국독립운동사』 5권, 국사편찬위원회, 488면.

28) 정근식·최경희, 「도서관의 설치와 일제 식민지출판경찰의 체계화, 1926~1929」, 『한국문학연구』 3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 120면.

29) 강신명, 「수양동우회 사건」, 『저작집 2』, 기독교문사, 1987, 572면.

관련 검열 기사 및 요지를 『조선출판경찰월보』 등의 검열 자료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강신명의 진술에 따르면, 일제는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에 수록된 <조선 아기의 노래>가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일치단결하여 독립을 목표로 전진하자는 내용이라고 해석하여 간접적인 독립운동으로 규정³⁰⁾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진술 외에는 삭제곡에 대한 일제의 검열 관련 문서를 찾기 어렵다.

『아동가요곡집 삼백곡』의 삭제곡은 검열 당국의 삭제 지침에 의해 삭제된 것이 아니었다. 불온 창가라는 일제의 외적 규정 속에서 『아동가요곡집 삼백곡』의 발간자들이 내부 검열을 통해 일부 노래를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이다. 삭제한 곡에는 공통적으로 조선을 환기하는 단어가 있었다. 조선인에게 조국을 환기하는 단어가 일제에게는 불온한 것으로, 반일의 상징으로 읽히리라 판단하고 관련 단어를 자체 삭제하는 방식으로, 평양 지역의 기독교계 관련자들이 『아동가요곡선 삼백곡』 재판본을 발간한다.

재판본의 발간 주체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촌부의 기관지를 발간한 농민생활사였다.³¹⁾ 관계자 일당은 주일학교에서 당장 활용할 텍스트가 필요했기에 수록곡의 일부를 삭제하고, 인쇄, 편집, 발행인을 교체하는 방식의 우회로를 택했다. 일제가 규정한 불온성의 내포를 거둬내고 반일 혐의가 짙은 초판본의 발행인 윤산온을 제외해야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을 유년주일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은 교회 주일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요 속에서 재판본을 발간했다. 출판법에 위배되거나 반일 운동에 저촉된다는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 일부 노래를 넣고 빼고 가사를 바꾸는 방식으로 자체 검열을 했다. 별다른 검열 지침이 없었음에도 『아동가요곡선 삼백곡』 초판본 수록곡의 24%를 삭제한 데에는, 노래책을 교본으로 활용하며 주일학교를 운영해야 했던, 일부 노래를 거둬내더라도 교회에 나온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미국인 선교사들의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다.

30) 강신명, 같은 곳.

31) 평양의 농민생활사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촌부의 기관지인 『농민생활』(1929~1945)을 발간했다. 첫 발행인은 윤산온(George Shannon McCune), 1936~1938년까지는 모의리(E. MMowrye), 1938~1941년까지는 유소(D. N. Lutz)였다. 박태일, 「1930년대 평양 지역문학과 『농민생활』-북한 지역문학사 연구 4」, 『영주어문』 29, 영주어문학회, 2015, 275~290면.

식민지 시기 발간한 동요선집 중, 초판본 수록곡의 24%를 삭제하면서까지 재판본을 발간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삭제곡을 복구한 경우도 드물다. 1929·1933년 흥남파가 발간한 『조선동요백곡집』은 검열에 걸려 삭제된 곡이 없고, 1929년 조선동요연구협회가 발간한 『조선동요선집』은 180편 중 2편이 검열에 의해 삭제됐으나 재판본은 발간하지 않았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조선동요연구협회 편집인들 간의 물리적 응집력, 출판 비용, 동요선집에 대한 일반의 수요 등이 적었기 때문에, 단 두 곡을 복구하기 위해 재판본을 발간하기는 쉽지 않았던 듯하다. 사전 검열을 받고 검열에 걸린 두 편은 목차에만 제목을 제시하고 본문은 여백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³²⁾ 1권을 발행하는 데 그쳤기에 삭제곡의 내용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

『조선동요선집』에서 본문이 삭제된 두 곡은 안병선의 「파랑새」와 주요한의 「종소리」다. 『조선출판경찰월보』의 기사 요지에 따르면 “靑ノ鳥”, “作者 朱 翰”의 “鐘ノ聲”³³⁾이 삭제된 이유는 치안 문제 때문이었다. 안병선의 「파랑새」에서는 어머니를 잃고 혼자 우는 새와 동일시한 화자가, 백성이 살 곳이 어디인지, 누구의 나라인지 알 수 없는 곳, 인간의 슬픔을 도깨비가 동정하는 곳을 “무서운 나라”라고 서술하는 내용이고, 주요한의 「종소리」는 새해의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실을 “빨간 하늘”로 은유하고, 어린 친구들이 손을 모아 종을 쳐서 이천만 조선인의 가슴에 울려야 한다고 당부하는 내용이다.³⁴⁾ 삭제 처분을 당한 동요는 식민지 조선의 부정적 현실을 은유적,

32) 강영미, 「조선동요연구협회의 동요운동 연구」, 『동방학지』 19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0, 189면.

33) 『朝鮮出版警察月報』 31호의 54~55면에는 “朝鮮新童謠選集「第一輯」全童謠諺漢文 六. 三. 一九 削除 平南 金基柱” 항목의 記事要旨에 제목 “鐘ノ聲”“作者 朱 翰”이라고 표기하고 일본어로 번역한 시를 수록해 놓았다.

34) 두 편의 인용문은 문한별, 「개작과 검열의 사회·문화사 세미나 3: 『조선출판경찰월보』 수록 문학작품 검열의 양상」(세미나 발표지), 20~21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발표문에서는 일본어로 번역해 놓은 『조선출판경찰월보』의 자료를 조선어로 다시 번역해 놓았다. “어머니를 잃고 혼자 우는 작은 새 한 마리./해는 서쪽 산에 기울고 나무 위에서./어머니를 갖고 싶다./민처(民處)는 어디 누구의 나라./빨 2개 달린 도깨비가/동정하며 우는 무서운 나라. 「청도」, “새해에는 종이 울리지 않는다. 왜 울리지 않는가/ 슬퍼서 우는가. 부서졌는가./종의 파수꾼이 죽은 후로는 울리지 않는다./새해에 종을 울리려 생각하면/어린 친구는 모두 모여 손을 모으자./빨간 하늘을 향해 외칠 때는/20,000,000 가슴마다 울리지 않는다.” [“울리지 않는다는 ‘울러가리’를 잘못 번역한 것임. 류덕제는 주요한의 「종소리」가 『아이생활』 58호(1931.1)에 수록돼 있음을 밝히고 3연을 인용해 놓았다. 류덕제, 「김기주의 『조선신동요선집』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한국아동청소년문

상징적으로 처리한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조선총독부의 검열로 인해 삭제된 동요는 『조선출판경찰월보』의 기사 요지를 확인하는 경로를 거치고, 일본어로 번역된 내용을 조선어로 재번역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아동가요곡집 삼백곡』은 초판본에 수록한 노래를 재판본에서 삭제하고, 재판본에서 삭제한 노래를 증보수정본에서 되살리는 일련의 재귀적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강신명이 편찬한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의 세 종의 판본을 비교하여 일제의 검열을 우회하기 위해 일부 노래를 삭제하고 다시 수록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폈다. 일제가 규정한 ‘불온 창가’의 내포를 상상하며 미국인 선교사와 교회 관련자가 초판본의 24%를 삭제하는 과정, 식민지 평양에서 제국의 동경으로 지역을 옮겨 편찬자인 강신명이 직접 삭제곡의 81%를 되살리는 과정은 1936~1940년까지의 시차, 미국인과 조선인이라는 국적의 차이, 식민과 제국이라는 공간의 차이, 아동가요 운동을 전개하는 지향의 차이가 ‘불온’의 해석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드러낸다.

식민지 시기 검열로 인해 삭제된 작품 중 원본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은 세 종의 판본을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원곡, 삭제곡, 복구곡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고, 삭제곡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수정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보기 드문 텍스트다. 또한 당시의 검열 지침에 의해 특정 곡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불온 창가라는 외적 규정 속에서 기독교계 관련자들이 문제가 될 만한 곡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점에서, 제국 일본이 규정하고 조선인이 상상한 검열의 내포를 짐작할 수 있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기독교계에서 주일학교용 교본으로 발간했음에도 전체 수록곡의 73%가 일반 동요이기에 1930년대 중후반 평양 지역에서 유통·향유한 동요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아동가요곡집 삼백곡』은 식민지 시기 평양 지역에서 전개한 기독교계 동요 운동의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이자,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한 동요 운동과의

학학회, 2018, 175면.

변별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다. 윤복진, 신고송 등의 월북 작가의 동요를 다수 수록한 점에서 분단 후 북한 아동가요의 정전화 과정과 연계하여 사고할 지점도 제공한다. 또한 1970~80년대 남한의 노래 운동에 참여한 크리스찬 아카데미,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등의 기독교계 청년단체의 움직임을 통시적으로 살필 수 있는 시발점이자, 기독교계의 초창기 노래운동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투고일: 2021.07.14

심사일: 2021.08.22

게재확정일: 2021.09.03

참고문헌

- 강신명, 『아동가요곡선 삼백곡』 초판, 평양: 농민생화사, 1936
_____, 『아동가요곡선 삼백곡』 재판, 평양: 농민생화사, 1936
_____, 『아동가요곡선 삼백곡』 증보수정본, 미발간, 1940
警務局 圖書課, 『朝鮮出版警察月報』 31호, 1931.4
계성 100년사 편찬위원회 편, 「동요의 요람」, 『계성백년사: 1906~2006』, 계성학원, 200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5, 국사편찬위원회, 1965
- 강신명, 『저작집 2』, 기독교문사, 1987
김명구, 『소죽 강신명 목사』, 서울장신대학교출판부, 2009
한용희, 『창작 동요 80년』, 한국음악교육연구회, 2004
홍정수, 『한국교회음악사상사』,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20
홍정수, 『한국교회음악사』, 가온음, 2021
- 강성호, 「식민지 조선의 기독교, 국가주의를 받아들이다」, 『주간경향』 1245호, 2017.9.26
강신명, 『저작집 2』, 기독교문사, 1987
강영미, 「조선동요연구협회의 동요운동 연구」, 『동방학지』 19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0
김 광, 「강신명의 아동가요곡선 300곡에 관한 연구: 주일학교 노래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명구, 『소죽 강신명 목사』, 서울장신대학교출판부, 2009
김영미, 「식민지 시기 주세업 관련 잡지를 통해 본 조선주조협회의 활동양상과 성격」, 『한일관계사연구』 71, 한일관계사학회
문한별, 「『조선출판경찰월보』 수록 아동 서사물의 검열 양상과 의미」, 『우리어문연구』 64, 우리어문학회, 2019
_____, 「개작과 검열의 사회·문화사 세미나 3: 『조선출판경찰월보』 수록 문학작품 검열의 양상」, 세미나 발표지, 2020
문한별·조영렬, 「일제강점기 문학 검열의 자의성과 적용 양상-아동 문학 검열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Vol.48, 한국어문학회국제학술포럼, 2020
류덕제, 「김기주의 『조선신동요선집』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8
박인경, 「1930년대 유년문학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인하대 박사학위 논문, 2021
박태일, 「1930년대 평양 지역문학과 『농민생활』-북한 지역문학사 연구 4」, 『영주어문』 29, 영주어문학회, 2015

- 송재원, 「3·1운동 이후 일제의 서북 지방 기독교 통제와 ‘선천 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 33,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10
- 조영렬·문한별, 「일제하 출판 검열 자료 『불온소년소녀독물역문(不穩少年少女讀物譯文)』 (1927.11)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77,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 윤은순, 「1920~1930년대 기독교 절제운동의 논리와 양상-금주금연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9
- 이대위, 「조선교회와 절제운동」, 『종교시보』 3(5), 1934.5
- 이정석, 「일제강점기 ‘출판법’ 등에 의한 아동문학 탄압 그리고 항거」, 『한국아동문학연구』 36, 한국아동문학학회, 2019
- 정근식·최경희, 「도서과의 설치와 일제 식민지출판경찰의 체계화, 1926-1929」, 『한국문학연구』 3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
- 최윤실, 「근대 아동잡지와 주일학교 노래집을 통한 한국 동요 재조명」,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9
- 한만수, 「일제시대 문학검열 연구를 위하여」, 『배달말』 27, 배달말학회, 2000
- _____, 「일제 식민지시기 문학검열과 원본 확정」, 『대동문화연구』 5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 _____, 「식민지 문학검열과 비교연구의 필요성」, 『비교문학』 41, 한국비교문학회, 2007
- _____, 「식민지시기 검열의 드러냄과 숨김」, 『배달말』 41, 배달말학회, 2007
- 한용희, 『창작 동요 80년』, 한국음악교육연구회, 2004
- 홍정수, 『한국교회음악사상사』,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20
- _____, 『한국교회음악사』, 가온음, 2021

Control of Colonial Power,
Rewriting as a Detour Strategy
— Focusing on “Three Hundred Songs for
Children’s Songs”

Kang, Young-mi

In this study, I compared the editions of Kang Shin-myeong’s ‘Three hundred songs for children’s songs(『아동가요곡선 삼백곡』)’. Through this, I examined a series of processes of deleting and re-publishing some songs in order to bypass the censorship of the Japanese Empire. I looked at the process of voluntarily deleting some of the songs while imagining the meaning of ‘resistance’ defined by the Japanese Empire. And the process of restoring some of the deleted songs by changing the publishing area from colonial Pyongyang to Tokyo, the capital of the empire, was investigat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version of the first edition and the restored version of the second edition revealed that the process of deleting some songs by an American missionary and church related people imagining the connotations of the ‘resistance’ stipulated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and the process of moving the region from colonial Pyongyang to the Imperial Tokyo and recovering part of the deleted songs by the editor Kang Shin-myeong himself. It reveals that the time difference between 1936 and 1940, the difference in space between colonization and empire, the difference in nationality between Americans and Koreans, and the difference in orientation to develop a children’s song movement influenced the interpretation of ‘resistance’ influenced the interpretation of ‘resista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istance’ defined by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reconstructed by the Koreans was temporary and arbitrary.

Key Words : Kang Shin-myeong, American missionary, children’s song, in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censorship, resistance

